



国立公園과 入場料

- 北漢, 道峰山 指定에 따른 몇가지 提議 -
(83. 2. 2 조선일보 社說)

(I)

세상이 험했던 조선왕조 明宗 때, 名相 朴淳은 틈만 있으면 종 하나 데리고 북한산이나 도봉산에 올랐다. 왜 힘들여 산에 오르냐고 막역한 친구인 成渾이 묻자 정사하는 동안 쌓인 불만, 울분, 투정, 원한 등 착잡한 심정이 산행 동안에 신기롭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라 했다.

이 진리는 현대인에게도 고스란히 통하고 있으며, 도시의 일요 등산 인구가 근년에 기하급수로 늘어난 비밀도 바로 이에 있는 것이다. 서울만도 시즌에는 종잡아 1백만명 안팎의 시민이 산을 찾는다 한다. 국부적 민족대이동이랄 수 있겠다.

만약 재상 朴淳이 해소시켰던 것처럼 그 많은 도시인구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면 산행은 어느 다른 산업에 못지 않는 엄청난 國益이랄 수가 있겠다.

서울은 이 세상의 대도시가운데서 가장 산행에 혜택받은 도시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높지 않고, 또 낮지도 않으면서 암벽,

계곡, 자연미가 빼어난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이 連脈으로 둘러 있어 버스트큰 하나 둘만으로도 값싸게 산 밑둥까지 이를 수 있는 대도시란 이 세상에서 서울 빼 놓고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의 시민들은 보너스를 받고 있는 셈이 된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보도돼왔던 北漢山 등 서울일대의 산들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리라는 계획이 확정된 것 같다. 서울시민들의 육체건강, 정신건강, 그리고 여가 생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이기에 관심이 쏠리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을 들여세우는 개발요소와 그로써, 훼손될 자연을 보호하는 보존요소가 작동하게 된다. 한데 이 개발과 보존은 상반된 개념이기에 조화시키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제기된다.

(2)

자연을 둔 개발의 현대적의미는 가능한 한 자연대로 보존하는

것이 개발이라고 본다. 산에

묻어있는 人工의 때를 가급적 벗겨버리는 것이 개발이다.

산행하는 사람이 시멘트 칠을 한 산길이나 계단을 편하게 가고 싶어하지 않으며, 벤치나 방가로 에 앉아 쉬고 싶지 않니하며 수도꼭지를 통해 물을 마시고 싶어하지 아니한다. 한데 여태까지 개발한 것을 보면 산행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철조망 하나 쳐놓고 세월이 흐르면 이편, 저편의 植生이 다르고 곤충들도 種이 달라진다 할이만큼 지여은인 공물에 예민하다. 그래서 이번 국립공원의 개발은 기위 묻어있는 사람의 때나 인공의 잔재를 어느 만큼 씻어 자연대로 환원시키는가의 차원에서 마스터 플랜이 짜여지길 당부하고자 한다.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도로시설을 적고 작을 수록 좋고 또 산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아래쪽에자리잡음으로써 자연의 폭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국립공원이 되면 등산구가 제한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서울의 산들은 連脈으로 둘러있기에 설악산이나 속리산, 내장산처럼 등산구를 한 두개로 제한시킬 수 없는 지리적조건에 놓여 있다. 북한산만 해도 1백여개가 넘는 자연 등산구가 있다.

국립공원이 되면 관리의 편의상, 또 자연보존의 미명아래 이 많은 등산구를 대폭 폐쇄하려 들 것이 뻔하다. 이용자를 위한 국

립공원이자 관리자를 위한 공원 이 아니라 視角에서 등산로 폐쇄를 극소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두 등산구로 인파를 몰아 한 두 길로만 오르내리게 함으로써 인파에 질려 산행하나 하나의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미리 머리를 써 주었으면 한다.

세째로 국립공원이 되면 시설물 이용이나 관리의 명분으로 입장료를 받게해준다. 현재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에 등산하려면 3백원내외의 입장료를 물게끔 해있다. 따지고 보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할 사람이면 몰라도 인공시설을 거부하는 대부분의 산행자들에게는 입산료가 부당하게 느껴진다.

더우기 가장 값싸게 가장 효과

높은 여가선용으로 산행을 생활화하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이나 젊은이들, 학생들에게는 입장료의 부담이 적지 않다.

만약 입장료 때문에 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가 위축을 받는다면 국가차원에서 결코 잘한 일은 못되기 때문이다.

법률상 입장료를 받지 않을 수 없다면 자연보호하는데 보탬을 준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내 놓을 수 있는 적은 액수로 잡아야 할 것이다. 적게 받더라도 이용머릿수가 방대하기에 관리수지상 차질이 나지 않을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산을 놀이터로 보지말고 심신 건강과 스트레스해소의 현장으로 보다 많은 국민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국립공원의 설계가 짜여져 나갔으면 한다

국립공원 北漢山

〈1983. 2. 2 朝鮮日報 社說〉

건설부는 올해중에 北漢山일대와 水洛山일대 86.41km를 국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가 지난 67년 12월 29일 智異山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이래 전국의 국립공원수는 모두 15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국립공원이 전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2.6%(2천 4백79평방km)에 이르게 됐다. 정부가 지정하기로 한 것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雪嶽山, 俗離山 등 기존 국립공원을 지정, 국토를 종합개

발함으로써 외국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北漢山일대의 국립공원지정은 이러한 현실적인 목적외 또 다른 면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北漢山일대에는 白雲臺, 國望峰, 仁壽峰, 佛岩山, 水洛山, 五峰 등 크고 작은 22개의 산봉우리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 자연경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역사의 숨결이 어느 산보다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朝鮮朝가 개국하여 漢陽을 수도로 정하게 된 것은 北漢山의 위치가 좋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며, 朝鮮朝 인조 때, 斥和論者의 거두인 金尙憲이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며 읊은 시조인 「가노라 三角山아, 다시보자 漢江水야」란 시조는 아직까지도 못사람들에게 애송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막론하고 北漢山은 우리민족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北漢山의 이름은 시대를 따라 자주 변해 신라 때는 負兒岳으로, 百濟 때는 漢山, 고려와 朝鮮朝 때는 華山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자연의 경관이 아름답다는 것과 함께 우리민족이 이 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영구히 보존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면에서 볼 때, 北漢山을 올해안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 너무 때늦은 감이 들기도한다. 그동안 北漢山일대에 대한 관리권이 서울시와 경기도로 2元化,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北漢山이 국민들의 정서함양의 터전이기보다 놀이터로 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직각없는 등산객이나 하이킹족에 의해 자연이 마구 훼손되기도 했다. 어떻든 앞으로 北漢山일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게됨에 따라 시, 도가 아닌 중앙정부(건설부)가 이 산을 보존하고 개발하게 됐다. 건설부는 오는 연말까지 이 일대를 생태계보존지구, 농어촌지구, 자연환경지구, 집단시설지역 등

으로 구분, 지정하여 지정목적에 맞게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기로 했다.

또 등산로도 縱走-橫斷-循環路로 다양화, 탐방객들을 분산, 유도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러한 計劃과 효과적인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탐방객에게는 입장료도 받을 예정이다. 이러한 제한 행위가 지금까지 이 산을 자유롭게 출입해온 사람들에게는 몹시 불편하고 성가

신 일이 될 수도 있다. 또 서울의 유일할 자연공간지대인 이 일대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토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구가 어려울뿐더러 北漢山이 우리 민족과 애환을 같이해온 「역사의 산」이란 점을 고려, 당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참아나가는 슬기를 우리 모두가 배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 생각한다.

여금 이에 부합되는 정책을 펴나가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떠한 개발이든지 種 또는 種의 서식처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개발을 계획하는 기업이나 이를 감독하는 행정당국은 그 개발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조사, 검토한 후 자연을 최대한으로 보존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국제자연보존연맹의 충고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雪嶽山과 케이블카

〈1982. 12. 25 東亞日報 記者手帖〉

雪嶽山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강원도가 최근 국립공원 및 천연보호구역으로 「유네스코」에 의해 오색~중청봉간 3.8km와 장사동~울산바위간 4.3km에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마련하자 자연보존이나 관광개발이냐를 둘러싸고 문화재 위원회 3분과와 국립공원 위원회안에서도 격렬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을 내세우는 쪽에 따르면 해마다 등반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노약자들에게도 이곳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여 86「아시아」 경기와 88서울올림픽에 대비, 외국관광객유치를 위해서도 개발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쪽 주장은 자연히 크게 파괴될우려가 있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嶽山은 특산식물인 금강조롱 등 1천종에 가까운 식물과 산양, 크낙새, 등 희귀조수가 서식하는 자연보호이므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경우 자연생태계에 큰 위협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하느냐, 또는 자연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문제는 그 누구도 한마디로 대답할 수가 없다. 그것은 보다 편리한 생존을 위해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그렇다고 분별없이 개발만을 일삼을 경우 이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의 파괴는 도리어 보다 큰 생존의 위협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연보존의 최고국제기관인 국제자연보존 연맹에서는 개발과 보존을 양립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20개항에 달하는 원칙을 마련, 1백여 회원국으로 하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경우 경제개발은 곧 국가발전이란 명분아래 무분별하게 개발만을 서둔 나머지 우리의 자연환경이나 관광자원이 도리어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놓아둘 수만은 없다. 최대한으로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최대한으로 이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것처럼 좋은 방법이 달리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자연을 이용하려면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수 없기 때문에 훼손이나 파괴를 피할 길이 없다.

문제는 어떻게하면 최소한으로 훼손이나 파괴를 줄이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나 관계인사로 하여금 개발에 앞서 면밀한 조사 검토를 하도록 해야만 한다.

비단 雪嶽山뿐 아니라 자연관광개발에 있어서는 앞으로 보존을 전제로 개발에 임해 주었으면 한다.